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그 의미 : 사업 복원 과정에서의 이슈 및 미래를 위한 제언

이 종 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장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폐지되었던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 과정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행정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함 (단, 기재된 내용과 제언은 '08년도 다원예술 간사 및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 등을 담당하고 '21년 예술위원회의 지원심의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거친 작성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며, 예술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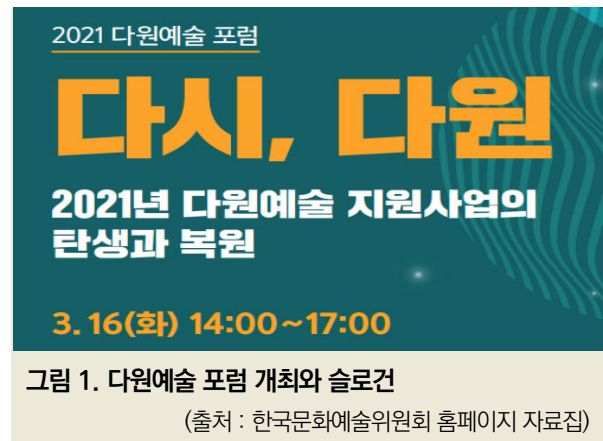
■ 드디어 재개된 다원예술 지원사업, 그런데 '다원'이 뭐죠?

과연 다원예술이란 무엇인가? 2005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극, 음악과 같이 다원예술이 하나의 공식 지원 분야로 지정된 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질문은 때로는 해묵은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이 분야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상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8년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기관 혁신안 가운데 사업혁신 13개 의제 중 하나로 '다원예술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다.

- 1997년 대중, 독립, 대안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된 예술위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을 마지막으로 중단됨(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사업 폐지)
- 2019년도 공모를 시작으로 다원예술분야를 지원 장르로 선택할 수 있는 예술위 공모사업은 '22년도 정시공모 기준 총 19개 세부 사업에 이룸

이후 3년간의 노력 끝에 '기초예술 다양성증진 지원 사업(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함께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 반영)'으로 '21년도에 비로소 공모를 재개하게 되었다.



이례적으로 위 두 사업은 공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복원 사업의 시행을 예고하며, 포럼과 내부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기본적인 전제는 기존 예술위원회가 진행했던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현장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리된 다원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부에서부터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표 1. 기존 연구에서의 다원예술의 용어 정의

다원예술은 예술 현장의 정책 요구와 수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 자체의 절대적 정의가 아닌, 국내외 예술의 흐름, 창작의 경향 등에 맞춰 상대적으로 정의 내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를 뒷받침할 창작지원의 형태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 다시 시작하는 다원예술지원사업의 특징

‘Reboot’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21년도 복원사업은 기존 예술위 공모사업의 심의체계와 사업관리 프로세스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 자가정의하는 다원예술 : 질의응답 형식의 지원신청서
- 현장에서 선발하는 지원대상 : 동료집단심의 도입
- 예측가능한 지원규모 : 유형별 정액 지원
- 보조금 편성의 유연성 확대 : 배리어 프리 등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적용된 새로운 접근법의 근간에는 타 분야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낙선포럼’(심의 탈락자 대상 지원제도에 대한 토론 등 포함) 개최 등 가장 에너지 넘치게 활동했던 1기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2006년 발표한 ‘다원예술의 개념과 비전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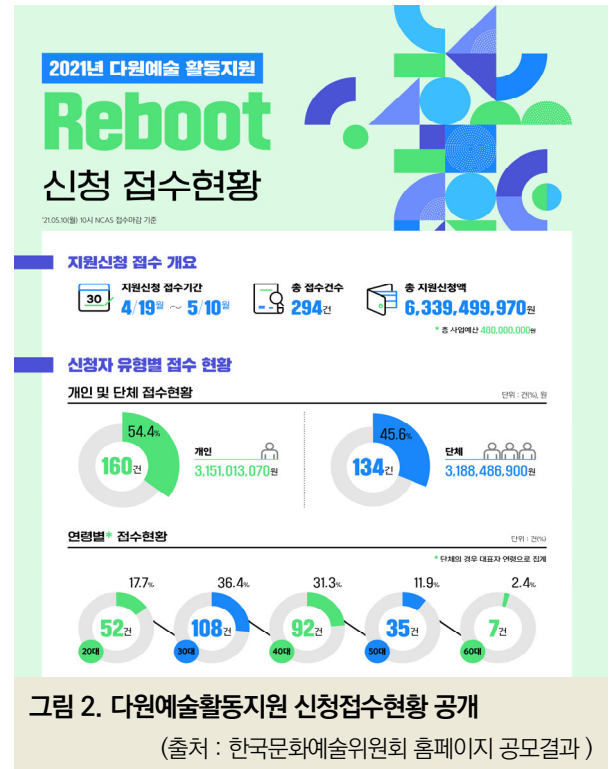
① 장르적 실험성, ② 예술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③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이라는 3대 가치를 본 사업을 통해 다시금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 출발점은 이미 수많은 공청회와 포럼, 각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현행 지원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정된 사업예산의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사결정 매커니즘의 폐해를 정면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심의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야하는 수고로움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논란과 이슈 대응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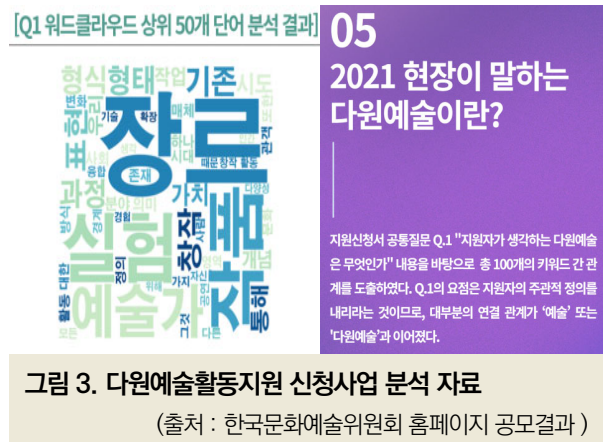
당초 사업 취지나 변경된 제도의 의도는 사라진 채 단순히 누가 선정되고, 탈락되었는지, 민원은 얼마나 적게 발생했는지에 매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균열을 가져오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처음으로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세부현황을 공개하고, 심의 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많은 정보와 분석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했다.



이런 결과물로 대학 입시 경쟁률 분석자료와 같은 상세한 접수현황 공개(그림 2 참조)는 공정심의실문조사에서 70%에 가까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전체 공모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해 전체 신청자들이 생각하는 다원예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청된 프로젝트의 특성 등을 시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 제도 개선 이전에 신뢰 회복이 먼저

‘Facts are the enemy of the Truth.’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번 다원예술 복원의 과정에서 심의제도 혁신은 가장 핵심이었고, 그만큼 가장 많은 행정력을 들였다고 자부할 만큼 세밀한 설계와 준비를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세한 하나하나의 영역에서는 완성도 높게 만반의 준비를 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예술위 내부(사무처와 7기 위원회)의 인식 공유와 합의, 공모 개시 전 주요 이해관계자들 외에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예술가들이 상처를 받고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여느 사업처럼 민원 대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통감하게 된다. 즉, 부분적인 사실 확인과 대응에 매몰되어 정작 무엇이 현장에서 이런 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감을 사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때인 것이다.

결국 기존의 경직된 장르별 지원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지원영역의 사각지대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도와 가치를 담아내는 영역으로서 다원예술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예술현장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간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과오를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를 얻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 앞으로의 다원예술을 위하여

예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다원예술을 영문으로 ‘Interdisciplinary Arts’라 표기해 왔으며, 이는 학제간 예술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하나 이상의 예술 분야를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사업 복원 이후 2차 년도를 맞아 가장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다원예술을 통해 분화된 사

업 간의 차별성이다. 즉, 다원예술 영역을 통해 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이제는 별도의 사업으로 확대/독립한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지원이나 이주노동자 및 LGBTQ를 중심에 두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 예술의 가치를 사회문제나 현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들과 어떻게 구분된 채 또 다른 확장성과 포용성을 발휘 할 수 있을지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작년 공모에 선정된 23개 사업의 주제별 분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선정사업별 핵심 키워드

뇌파 데이터, VR	유년기억에 관한 소설, 복합매체	가상공간, 문학	마이크 전자운동, 춤
남북관계, 복합매체	SF소설, 복합매체	신체, 조각	실시간 모션캡처, 오토튠
사물과 인간, 복합매체	코로나19, 테크놀로지	설치 오브제 악기, 퍼포먼스	판소리의 맺고풀기, 퍼포먼스
리버브 효과, 공간 모듈레이션	뜨개질, 복합매체	안무, 복합매체	보험산업 알고리즘, 릴렉스 퍼포먼스
5가지 기억, 해체작업	소리지도, 사운드	테크놀로지, 생태계	기후 생태계 위기, 복합매체
물질과 추상의 관계, 복합매체	자본주의 작동원리, 춤	정원의 구성요소, 복합매체	-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초기 다원예술 지원영역을 설정할 때 참고한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어와 지원영역의 변화를 통해 기존 예술장르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의 적정성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창작산실 등과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을 유도하거나, 이미 기성 장르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 유형의 테두리를 제시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예술위 사무처에서 다원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체 연구 조직인 ARKO Research Lab 이 진행한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뷰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예술계의 관행과 병폐에서 탈피한 개혁 운동 차원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 art change the world』.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다원예술포럼 사후자료집 : 다시, 다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Available : <https://www.arko.or.kr>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2022).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그 의미”.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종국 jkleee@arko.or.kr
ACKIS브리핑 발행 2022.04.20.

#동료집단평가 #블랙리스트폐지사업 #예술현장과 의 신뢰
#심의제도혁신 #공정한심의 #정보공개확대